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학문 목적 한국어 쓰기 교수 원리*

- 쓰기에서의 정직성을 중심으로 -

이 윤 진

Abstract

Yunjin Lee. 2012. 2. 28. Teaching principles of KAP writing for International students: Focused on the integrity(honesty) of writing. *Bilingual Research* 48, 369-39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hasize the importance of integrity of writing in KAP writing and contemplate on the feasible teaching principles. Honest writing is an essential element that backs up 'good writing'. If this element is absent from writing, one cannot expect the growth of skills that backs up academic writing. However, it is unreasonable to assume that just because the international students do not keep to honest writing. It is important to first build a sufficient amount of teacher's interest and care as well as the implementation of consistent and fair principles as the background. All in all, it is of absolute importance the type of attitude and cognition a teacher has towards this matter concerning KAP writing. Secondly, it has been verified that the information about the implementation of honest writing should be actively pursued and reflected in KAP writing curriculum. Thirdly, it has been found that consistent and convenient communication before the submission of the final copy of the paper and the understanding of the current writing process of each individual is the path to sustaining honest writing. Through this study, it was discovered that the issue of 'integrity(honesty)' in KAP writing education cannot be overlooked lightly and therefore, it is anticipated that it has been accentuated enough as to be interpreted and applied from an educational perspective. (Yonsei University)

* 줄고의 미진한 부분을 다시 한 번 살펴볼 수 있도록 예리한 지적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익명의 심사위원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Key words】 학문 목적 한국어 쓰기(KAP writing: Korean for Academic Purposes), 외국인 유학생(international students), 쓰기에서의 정직성(integrity(honesty) of writing), 정직한 글쓰기(honest writing), 교수 원리(teaching principles)

1. 머리말

학문 목적 쓰기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글쓰기를 통한 학문적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 있다고 볼 때, 정직하고 성실하게 글을 쓰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정직성¹⁾’이 담보되지 않은 글은 결국 학습자의 쓰기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로서 가치를 지닐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대학 교육에서는 자신의 생각이나 연구 결과를 표현하는데 있어 글쓰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정직하게 쓰는 것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여겨온 감이 없지 않다(이인재, 2008:131). 특히 학부의 외국인 유학생은 다양한 이유로 인해 정직하고 성실하게 글쓰기를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쓰기 교수에 있어서 정직성의 문제는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에 대한 논의는 미흡했다.²⁾

-
- 1) 김성수(2008)에서는 ‘학문적 정직성(Academic honesty)’의 문제를 글쓰기에서의 ‘표절’을 중심으로 논의한 바 있다. 즉 학문에서 정직성이 지켜지지 않는 대표적인 현상으로서 쓰기에서의 ‘정직성’ 문제에 초점을 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국외 연구에서도 ‘정직성(honesty/integrity)’이라는 용어가 자주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받아들여 본고에서도 ‘정직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 2) 학문 목적 한국어 교육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된 것은 2000년대에 들어서라고 할 수 있으며 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었다. 교육 과정 및 교수요목에 관련된 논의(김정숙, 2000; 이해영, 2004; 최정순, 2006; 한송화, 2010)를 비롯하여 현황 분석(박석준, 2008; 최은규, 2009), 전공 분야별 어휘 선정 관련(김유미·강현화, 2008) 논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폭넓은 성과들이 이를 잘 보여준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살피고자 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글쓰기에서 ‘정직성’의 문제에 초점을 둔 논의는 아직 찾기 어렵

먼저 우리는 정직성이 결여된 글쓰기가 실제로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가³⁾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가령, 외국인 유학생이 제출한 학술적 보고서가 결과물 자체는 그럴듯하더라도 온전히 스스로의 능력으로 작성하지 않은, 정직한 글이 아니라면 학문 목적 한국어 쓰기 교육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⁴⁾

이 글의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글쓰기에 있어서의 정직성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지기 쉬운 ‘편견’이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정직성이 부족한 글’이라고 할 때 그 원인을 주로 학습자(필자) 요인으로 치부해 버림으로써 현장의 교수자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알아볼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의 글쓰기에서 ‘정직성’의 문제를 단순히 한국어 능력 부족이나 학습자의 도덕성의 문제로만 간주하고 그 심각성을 인식하여 실태를 파악하는 데에 그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본고의 입장이다.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교육적 차원에서의 장치와 방안이 마련되어야

다. 이에 대해 부분적으로 언급하거나 지적한 몇몇 논의(김지혜,2009; 장은경:2009, 최은지,2009; 김성숙,2011; 이인영,2011)와 본격적인 연구를 시도한 논의(이윤진,2011)가 눈에 띄기는 하나 아직 구체화된 단계라고는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2장에서 검토하기로 한다.

- 3) 이와 관련해서는 정병기(2008), 황성근(2008), 이인재(2008), 이재승(2010) 등을 참고할 수 있다. 특히 이인재(2008:130)에서는 정직성과 글쓰기의 가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대학생들이 부과된 보고서를 써서 제출할 때 친구의 것을 베껴 낸다거나, 돈을 주고 남이 쓴 보고서를 사다가 조금 고치거나 아니면 그대로 제출한다면, 그 보고서는 진정한 가치를 지닐 수 있을까? 그 보고서가 내용이 충실하고 체계적으로 잘 정리되었다고 해도 글쓰기 윤리에 어긋났다면 가치를 인정받을 수 없을 것이다.”
- 4) 즉, 글을 쓰는 과정을 통해 학습자가 얻은 것(배운 것)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학문 목적 한국어 쓰기 교육의 본래 목적인 학문적 의사소통 능력의 신장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

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이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은 학부에서 쓰게 되는 학술적 보고서와 같이 여러 단계를 거쳐 완성되는 글쓰기에 있어서, 정직성이 전제된 ‘진정한 쓰기 능력 신장’이라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어떤 교육적 원리가 적용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거시적인 조망이다.

이에 본고는 학문 목적 한국어 쓰기에서 ‘정직성’의 가치를 부각시키고, 외국인 유학생이 정직한 글쓰기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실천적 교수 원리⁵⁾를 알아보는 데에 목적을 두고자 한다.

2. 학문 목적 한국어 쓰기에서의 ‘정직성’

학부의 외국인 유학생은 다양한 글쓰기 상황에 노출된다.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으로 요구되는 쓰기 유형이면서도 ‘정직성’ 준수가 더욱 강조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학술적 보고서⁶⁾’이다. 학술적 보고서 쓰기를

-
- 5) 여기에서 교수 원리(teaching principles)란 교수자가 실제 교육 현장에 적용해야 하는 원리, 이론 혹은 교육의 대원칙을 가리키는 것이다. 따라서 수업에서 가르칠 특정 내용이나 항목에 대하여 적절한 계획과 구체적인 방법의 설계라는 의미와는 다소 구분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교수 방법’, ‘교수 방안’이라는 표현 대신 ‘교수 원리’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 6) 여기에서는 일반적으로 ‘학술적 보고서’ 또는 ‘리포트’, ‘학술논문’이라 불리는 글쓰기의 유형을 모두 지칭하는 의미로 쓴 것으로서, 자신의 견해가 드러나지 않는 단순한 과제 형식의 글과는 구분된다. 참고로, 글쓰기 교재에 제시된 ‘보고서’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 보고서란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강의와 관련하여 학생들이 교수에게 제출하는 다양한 종류의 과제를 말한다.(이정희 외, 2007:70)
 - 보고서(report)는 보통 실제 교과과정에서 학생에게 주어지는 쓰기 과제를 말한다. 대부분의 보고서는 발표와 함께 학기말 평가에 주어지는 중요한 과제이다.(허용, 2007:58)
 - 대학에서 학생들이 작성하는 보고서는 공부의 결과를 충실하게 정리하여 제출하는 문서로 정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보고서는 조사 및 연구의 대상과 목적, 기간, 방법, 결과 및 평가 등을 구성 요소로 작성된다.(정희모 외, 2008:265)

통해 학습자들은 참고 자료에서 이해한 내용을 분석하여 자신의 글에 적절하게 통합시키고 필자로서의 관점을 드러내는 경험을 한다. 따라서 학술적 보고서는 외국인 유학생이 초보 연구자로서의 첫걸음을 내딛는 단계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글쓰기라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을 간과하기 어렵다. 비록 학술지의 소논문이나 학위 논문처럼 공식적으로 출판되어 다른 연구자와 소통의 기회를 갖거나 사회적 책임을 갖는 공적인 글은 아닐지라도, 적어도 동료 및 담당 교수자와의 학문적 의사소통을 전제로 하는 글쓰기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글쓰기를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익숙해짐으로써 외국인 유학생은 점차 학문 사회(academic society)에서 필요한 소양과 능력을 키워나가게 되는 것이다. 결국 학술적 보고서 쓰기 능력이 외국인 유학생의 학업의 성패를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외국인 유학생(L2 학습자)은 자신의 모국어가 아닌 낯선 언어(한국어)를 매개로 하여 글쓰기를 해야 하는 까닭에, 혹은 그 밖의 다양한 변인들(학습자의 문화적 배경, 이전의 학습 경험 등)로 인해, 일반 대학생(L1 학습자)보다 많은 애로를 겪게 된다는 점이다. 이것은 결국 학술적 보고서 쓰기에서 정직성을 준수하지 못하는 주요 원인이 된다.

실제로 이윤진(2011)에 따르면 학부의 외국인 유학생의 약 70%는 글쓰기의 정직성을 준수하지 못한 경험, 즉 글쓰기 윤리를 위반한 경험이 한 번 이상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글쓰기의 정직성에 대한 유학생의 인식 및 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경향을 알아본 본 연구의 조사⁷⁾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얻었다. 외국인 유학생의 70~80%는 이전 리포트 재사용, 리포트 구매, 타인의 보고서 제출, 자료 조합 및 베끼기 등의 경험이 한 번 이상 있다는 것이다. 참고로, 쓰기에서의 정직성의 문제에 관하여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국외의 학문 목적 영어 교육 분야에서도 외국인 유학생의 표절이 일반 대학생보다 훨씬 더 쉽게 일어난다

7) 2011년도 1학기에 Y대 글쓰기 수강생 대상(46명)으로 오프라인 설문을, 국내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89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였다.

(John Walker, 2010)는 사실이 여러 차례 입증된 바 있다.

국의 연구에 비하면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학문 목적 한국어 쓰기 분야의 연구 성과들 중에서도 ‘정직성’의 문제를 언급한 논의를 찾아볼 수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교육적인 관점에서 구체적인 논의의 필요성을 잠재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제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먼저 관련 선행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문제를 검토함으로써 학문 목적 쓰기에서 필수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교수 원리의 단서를 찾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은 3장에서 하기로 하겠다.

첫 번째로, 쓰기에서의 정직성에 관련된 내용을 교육과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논의를 찾아볼 수 있다. 그 예로, 학문 목적 학습자의 쓰기에서 발견되는 대표적인 문제를, 참고 서적이나 교재 등의 내용을 그대로 ‘베껴 쓰는 것’이라고 한 김지혜(2009)와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의 보고서에서 참고 텍스트의 내용을 자신의 글에 빌리는 방법으로써 ‘완전모사’가 압도적으로 많다고 밝힌 장은경(2009) 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베껴 쓰기 혹은 완전모사 등으로 인해 외국인 유학생이 표절 논란에 휩싸일 우려가 있음을 지적함과 동시에 쓰기에서의 정직성과 관련하여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명시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제안하였다.⁸⁾ 이는 곧 학문 목적 쓰기 교육과정에서의 적극적인 반영의 필요성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참고로, Howard, R. M.(2002)의 “Don’t Police Plagiarism; Just TAEACH” 라는 글의 제목에서도 나타나듯이 교수자는 학습자의 정직하지 않은 쓰기를 단순히 ‘처벌’의 대상으로서 부각시킬 것이 아니라, 정직한 글쓰기를 위해 ‘가르쳐야 할’ 내용과 과정이 무엇인가에 더 초점을 두어야 하므로 쓰기 교육과정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

8) 참고로, 이윤진(2011)에서는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글쓰기 교육 현황 검토를 통해, 쓰기에서의 정직성과 관련된 내용이 쓰기 교재나 실제 수업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있지 않음을 문제제기한 바 있다.

두 번째로는, 쓰기 교수 원리를 모색함에 있어서 교수자의 인식 및 태도의 문제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아야 함을 앞선 연구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외국인 대학생의 보고서 양상을 분석한 이인영(2011:513-522)에서는 실제 자료를 통해 글쓰기에 대한 외국인 유학생의 윤리적 의식이 미흡함을 문제제기하였는데 그 근거로서 기계적인 인용이 많이 나타남을 언급하였다. 그런데 외국인 대학생들이 처해 있는 언어적 제약을 과장하여 다소의 짜집기를 용인하는 분위기, 즉 짜집기를 그나마 다양한 한국어 자료의 참조 노력의 일환으로 인정하려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교수자의 인식 및 태도에 관해 설명한 또 다른 논의인 Howard, R. M(2002:47)에서도 학습자의 정직하지 못한 글쓰기를 대할 때 지나친 규제도 문제가 되지만 교수자의 ‘묵인’과 ‘방임’ 역시 바람직하지 않음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교수자가 다운받은 리포트를 문제 삼지 않고 묵인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교수자가 어떤 교육적 의도를 가지고 과제를 부여하면 학생은 그 글쓰기 경험을 통해 무언가를 배워야 하는데, 만약 그들이 스스로 쓰지 않는다면 배우는 것도 없기 때문이다. 또한 학습자를 그대로 방임하는 것은 진정한 필자가 아닌 표절자(plagiarist)를 양산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 살펴볼 때 교수자의 인식 및 태도가 학습자의 쓰기에서의 정직성 준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느낄 수 있다. 따라서 쓰기 교수 원리의 모색에 있어서 교수자의 인식 및 태도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

세 번째로, 글쓰기의 정직성 준수를 위해서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활발한 상호작용이 전제되어야 함을 인식하게 하는 선행 연구가 있다. 먼저,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가 제출한 보고서에서 나타나는 표절은 윤

리적인 문제를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독자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주어 낮은 평가로 이어지게 된다고 한 최은지(2009)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⁹⁾ 이는 쓰기에서의 정직성과 보고서의 평가와 직결되는 문제로서, 쓰기의 ‘과정(단계)’을 간과한 채 최종 ‘결과물’만으로 학습자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시사하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김성숙(2011:134)에서는 ‘부정적 전략’이라는 표현을 써서, 학술적 과제 수행 능력이 부족한 외국인 유학생이 보고서를 쓸 때 인터넷 과제 시장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실태를 꼬집은 바 있다. 즉, 대량의 정보를 손쉽게 얻어 주어진 글쓰기 과제를 완성하려는 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였는데 이것은 과제 제출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거나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경우 자주 나타나는 현상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교수자가 학습자의 모든 글쓰기 단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면서 관리하고 철저히 파악한다면, 즉 교사·학생 간의 활발한 상호작용이 전제된다면 학습자의 부정적 전략이나 윤리적 문제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이에 쓰기 과정과 혹은 평가와 관련하여 교수자의 상호작용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하여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상으로 관련 선행 연구에서 문제 제기한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학문 목적 한국어 쓰기에서 ‘정직성’의 가치, 우리가 그것에 주목해야 하는 까닭을 확인하였고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의 글쓰기에서의 ‘정직성’의 문제에 관하여 향후 심도 있는 논의가 전개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잠재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논의되어 왔지만 학문 목적 한국어 쓰기 분야에서 그 자체를 주된 연구 대상으로 삼은 것은 드물었다는 점도 확인하였다. 그러나 학문 목적 쓰기에서 반영되어야 할 교수 원리(교육과정의 반영, 교수자의 인식 및 태도, 교사·학생 간

9) 유학생이 제출한 보고서의 수준을 ‘상중하’로 나누어 살핀 결과, 특히 ‘하’의 평가를 받은 보고서에서 표절의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났다고 하였다.(최은지, 2009:208)

의 상호작용)의 단서를 찾는 데에 국내외의 앞선 연구들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3장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의 정직한 글쓰기를 위한 실천적 교수 원리를 모색하고자 한다.

3.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학문 목적 쓰기 교수 원리

본 장에서는 학문 목적 한국어 쓰기 교육에 있어서 글쓰기의 정직성을 준수하기 위해 실천해야 할 교수 원리 가운데, ‘교육과정의 반영’, ‘교수자의 인식 및 태도’, ‘교사·학생 간의 상호작용’ 측면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¹⁰⁾

3.1. 교육과정의 반영

학문 목적의 한국어 쓰기에 있어서 ‘정직성’의 문제는 교육적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되어야 하고 글쓰기 교육과정에도 이와 관련된 내용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이것은 학문 목적 영어 교육 연구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실천되어 오고 있는 것으로서, 한국어 교육의 상황에 맞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가령, 외국인 유학생(영어 L2학습자)을 위한 학술적 보고서 쓰기 교재

10) 앞서 밝힌 바와 같이 국외 제2언어 쓰기 교육 분야에서는 정직성의 문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된 반면 한국어 교육에서는 이에 대한 문제제기도 충분히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본고는 최근 국외 연구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이론 가운데 학문 목적 한국어 교육에 적극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실제 학문 목적 한국어 쓰기 교수 현장의 사례와 경험을 접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다만,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는 이에 관련된 논의의 초기 단계인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문제에 대한 인식’과 ‘교수 원리의 거시적인 조망’이라 보며 본고도 이에 초점을 두었음을 밝힌다. 이를 기반으로 향후 구체적인 교육 내용이나 순서, 방법들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도 가능해질 것이라 기대한다.

나 온라인 사이트¹¹⁾를 살펴보면 글쓰기 자체에 대한 기술과 연습뿐만 아니라 정직한 글쓰기에 대한 내용을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Stephen Bailey(2003/2011)에서는 글쓰기 과정(The writing process)을 다루고 있는 장(chapter)의 앞부분에 ‘표절 예방(Avoiding plagiarism)’이라는 단원을 포함하고 있다.¹²⁾ 이 교재의 특징은 형식적이고 이론적인 내용보다는 실제로 영어 L2학습자가 학술적 글쓰기를 배우는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했다는 점이다. 구체적인 예로, ‘출처 표기는 제대로 했지만 저자의 이름을 밝힐 때 오타가 생긴 것’, ‘아무런 언급 없이 웹 사이트에서 가져온 글을 짜깁기 한 것’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제시하면서 이것이 표절(plagiarism)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판단을 직접 해 보도록 하는 연습 문제가 매우 흥미롭고 실용적이라 판단된다.

다음은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본고에서 새롭게 구성해 본 연습문제의 사례이다.¹³⁾ 정직한 글쓰기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을 진단하거나 실제 수업에서 이러한 내용을 다루고자 할 때 토론 형식으로 사용하는 등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1. 보고서는 독창성과 창의성이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글을 읽지 않고 자신의 생각만으로 써야 한다.	<input type="checkbox"/> 맞아요	<input type="checkbox"/> 틀려요
2. 보고서를 쓰는 ‘과정’은 중요하지 않다. 최종적인 ‘결과’에만 신경을 쓰면 된다.	<input type="checkbox"/> 맞아요	<input type="checkbox"/> 틀려요

11) <http://cw.routledge.com/textbooks/bailey/questions.asp?unit=1>

12)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은 ‘What is plagiarism?, Acknowledging sources, Degrees of plagiarism, Avoiding plagiarism by summarising and paraphrasing, Avoiding plagiarism by developing good study habits’ 등이다.

13) 외국인 학부생의 학술적 보고서 쓰기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학습자들에게서 자주 나타나는 현상들, 또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 등을 통해 나타난 결과를 반영하여 구성해 본 것이다. 다만, L2쓰기 교육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항목도 포함되어 있으며 7~10번 항목은 실제 한국어 학습자의 사례를 본고에서 응용한 것임을 밝힌다.

<p>3.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리포트를 구매하였다. 표현을 조금 고치고 나의 의견을 포함하여 단시간에 나의 리포트를 완성하였다.</p> <p style="text-align: center;"><input type="checkbox"/> 맞아요 <input type="checkbox"/> 틀려요</p>
<p>4.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유명 학술지의 글을 읽었다. 좋은 부분을 찾아 인용하였는데 깜빡 잊고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p> <p style="text-align: center;"><input type="checkbox"/> 맞아요 <input type="checkbox"/> 틀려요</p>
<p>5. 이번 학기에는 글쓰기 과제가 너무 많아서 시간이 부족하다. 운 좋게 지난 학기에 쓴 보고서 주제와 비슷한 과제여서 그것을 조금 고쳐서 다시 제출했다.</p> <p style="text-align: center;"><input type="checkbox"/> 맞아요 <input type="checkbox"/> 틀려요</p>
<p>6. 다른 논문에서 읽은 부분을 내 글에 직접 인용하면서 큰 따옴표(“ ”)를 표시하였다. 그런데 나의 의견을 조금 더 명확히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따옴표 안의 내용을 조금 고쳤다.</p> <p style="text-align: center;"><input type="checkbox"/> 맞아요 <input type="checkbox"/> 틀려요</p>
<p>7. 모국어 포털 사이트에서 찾은 자료를 한국어로 번역해서 보고서로 그대로 제출했다.</p> <p style="text-align: center;"><input type="checkbox"/> 맞아요 <input type="checkbox"/> 틀려요</p>
<p>8. 과제를 할 때마다 한국어 맞춤법, 문법 때문에 틀릴까 봐 걱정이다. 제출하기 전에 한국인 친구에게 부탁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수정받으면 안심이다.</p> <p style="text-align: center;"><input type="checkbox"/> 맞아요 <input type="checkbox"/> 틀려요</p>
<p>9. 보고서의 참고 자료 목록에 읽지 않은 자료도 포함하면 보고서가 더 잘 쓴 것처럼 보여서 좋다.</p> <p style="text-align: center;"><input type="checkbox"/> 맞아요 <input type="checkbox"/> 틀려요</p>
<p>10. 나 혼자 정직한 글쓰기를 해서 나쁜 학점을 받는 것보다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좋은 학점을 받는 것이 낫다.</p> <p style="text-align: center;"><input type="checkbox"/> 맞아요 <input type="checkbox"/> 틀려요</p>

위에서 제시한 문항 이외에도 인용이나 출처 표기의 실질적인 방법 제시 및 연습 등도 글쓰기 교육과정 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들이다.

이상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 대상의 정직한 글쓰기 교육을 위해서는 교수자가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를 연구하여 교육과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특히 학술적 글쓰기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신입생의 경우는 성실하고 정직한 글쓰기가 더욱 강조되어야 하고 체계적인 원리와 내용, 방법이 교육과정에도 구체적으로 담겨야 한다

(Dey, S. K. and M. Abdus Sobhan, 2006).

3.2. 교수자의 인식 및 태도

학문 목적 한국어 쓰기에서 ‘정직성’의 문제에 부딪히게 될 때 교수자가 어떤 인식과 태도를 취하는가는 학습자의 행동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수업 전체의 방향성과 분위기를 좌우하는 주요 요인이 된다. 특히 쓰기에서의 정직성의 문제는 아직 이에 대한 관리 규정이나 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국내의 상황을 감안할 때 교수자의 인식 및 태도 하나하나가 학습자에게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먼저 알려주려는 교육적 관점에서, 학습자를 비난하지 않고 교수자 스스로 ‘학습자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가’를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다음에 제시된 몇 가지 원리들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1) 세심한 관심을 갖되 지나친 통제·방임은 바람직하지 않다.

교수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어떤 것이 ‘좋은 글쓰기’인지 끊임없이 강조하고 학습자를 독려하는 것이며 상황에 맞게, 신중하게 그리고 적절히 대처하는 일이다.

학습자의 글쓰기가 정직하고 성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 늘 세심한 관심을 가지되 교수자는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관대해서도 엄격해서도 안 된다. 가령, 한국어 학습자로 하여금 교수자 자신이 글쓰기의 정직성 부분에 대하여 방임 혹은 묵인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학습자는 바람직하지 않은 유혹에 더욱 빠지기 쉽다.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전략을 활용하여 좋은 학점을 받은 학습자조차 자신의 행위를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반대로 교수자가 정직하고 성실한 글쓰기 준수에 대하여 지나치게 민감한 태도를 보여 그 자체만을 강조하다 보면 학습자가 심리적 부담을 느껴 글쓰기에 의욕과 자신감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¹⁴⁾ 따라서 교수자의 세심한 관심과 배려가 전제되어야 하지만 지나친 통제 및 방임은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옴을 유의해야 한다.

(2) 공정하고 일관된 방침 하에 사후 처벌보다 사전 예방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글쓰기의 정직성에 대한 교수자의 일관된 방침을 바탕으로, 처벌보다는 사전 예방에 초점을 두는 태도가 바람직하다. 교수자는 한 학기 동안의 성과에 대해 학점을 부여하는 ‘평가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모든 학습자에게 적용될 글쓰기의 정직성 준수 및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사전에 공지하고, 이를 반영하여 공정한 평가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조제희(2009:31)는 다음과 같이 언급한 바 있다.

“글은 작가의 피와 땀의 결정체다. 학생들의 글쓰기 표절에 관한 한 교수는 공정한 심판의 역할도 해야 한다. 왜냐하면 글쓰기의 부정행위를 밝혀내는 일은 정직하게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는 학생들에게 그들이 투자한 시간과 노력에 상응하는 점수를 주고 공평하게 기회를 주는 정의로운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첫 발걸음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즉, 교수자는 글쓰기의 ‘정직성’에 있어서 최소한의 ‘처벌’ 여부에 대한 판단도 결코 가볍게 내릴 수 없으며 그것이 어떤 결정이든 교육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교수자가 사전에 공지한 규정

14) 도리어 선부른 규제로 인해 부작용을 불러일으키기보다는 오히려 관대함이 나올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및 약속이 어긋난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학습자에게 무엇이 잘못인지를 알려주어 납득시켜야 한다. 규제와 강요에 의한 처벌만으로는 교육적 효과를 수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쓰기의 정직성을 준수하지 않은 학습자에 대하여 ‘처벌’의 단계까지 가다 보면 교수자와 학습자는 서로가 어쩔 수 없는 대립 구도의 상황에 맞닥뜨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것은 어느 한 쪽이 피해자라기보다는 모두에게 심리적인 상처를 남기게 되므로 신중해야 한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후 처벌보다 체계적인 교육으로써 사전 예방에 최대한 주력해야 한다는 사실이고, ‘승자’와 ‘패자’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위치에서 ‘상생’할 수 있는 대안 모색이 최선임을 깨달아야 한다.

(3) 글쓰기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전략으로 인정하되, 글쓰기 단계별로 엄격함의 정도에 차등 둘 필요가 있다.

정직한 글쓰기에서 다소 벗어나 보이는 글이 나타나더라도 때로는 학습자의 글쓰기 학습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혹은 전략)의 하나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는 대부분 한국어 5급, 6급 이상의 고급 수준의 한국어를 구사한다. 그러나 학문 목적 글쓰기에는 아직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자신만의 전략을 개발하고 활용하면서 유창한 학문적 글쓰기 능력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그런데, 참고 자료의 적절한 활용 방법에 익숙하지 않아 실수를 한 경우, 자신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정직하지 못한 글쓰기를 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물론 충분한 노력이나 시간의 투자 없이 의도적으로 짜깁기나 표절을 하는 학습자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실수와 잘못을 부정직한 글쓰기로 간주하고 학문 목적 글쓰기를 배워 나가는 초창기의 학습자를 도덕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단정 짓는 것은 옳지 않다.

다시 말하면, 교수자는 외국인 유학생이 학문 목적 글쓰기를 배워 나가는 단계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전략¹⁵⁾의 하나로, 정직성을 준수하

지 못하는(못한 것처럼 보이는) 글이 나타날 가능성을 열어두되 글쓰기 단계별로 엄격함이나 관용의 정도에 차등을 두어야 한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그들의 글쓰기 능력 발달을 바라보는 제 2언어 교육자로서의 해안이 필요하다.

3.3. 교사 · 학생 간의 활발한 상호작용

제2언어 쓰기 교육에서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 그리고 과정 중심 쓰기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알려져 있지만, 이것이 글쓰기의 정직성 준수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학문 목적 한국어 쓰기 교육 분야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었다. 이에 본 절에서는 보고서의 최종 평가 전까지 교사와의 활발한 상호작용이 강조되어야 하는 까닭을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정리해 보고자 한다.

(1) 잘 가르치는 것 이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다.

교사와 학습자 간의 활발한 상호작용의 장점은, 학습자가 스스로 자신의 글의 ‘독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동기부여함으로써 글을 성의껏 수정할 기회를 갖도록 한다는 점이다. 만약 학술적 보고서를 쓰는 과정에서 학습자가 교수자의 다양한 도움을 필요로 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과정이 생략된 채, 최종 보고서만을 제출하게 한다면 학습자는 자신의 글을 ‘쓰는(완성하는)’ 데에 급급하게 되고 정작 자신의 글을 제대로 읽어 볼 기회를 갖기 어렵다.

15) 참고로, Pecorari, D(2003)는 짜깁기의 예를 들면서 이는 학문적 글쓰기에 있어서 나타날 수 있는 광범위한 전략의 하나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다만, 이를 어디까지 인정해야 할지는 어려운 문제이고 교수자는 정직한 글쓰기 준수에 대한 학습자의 의도성에 대하여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즉, Howard, R. M(2002)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교수자와의 상호작용의 부재는 학습자로 하여금 자신의 글에 진정한 독자가 될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는 결국 학생들이 정직하게 글을 쓰지 않게 되는 것과도 관련이 깊다. 그는 교수자가 보고서 평가 점수에 “잘 했어요(good work)”라고만 무성의하게 써 주는 것, 또 학습자와의 대화가 생략된 채 문법이나 표현 등 틀린 것만을 지적하는 것도 의미가 없다고 하면서 최종 제출 전까지 충분한 면담 시간을 가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정직한 글쓰기를 하라고 학습자에게 강요하면서도 교수자가 어떤 역할과 노력도 하지 않는다면 좋은 결과도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일침을 가하고 있다. 또 교수자의 나태함은 학생들을 더욱 표절의 유혹에 빠지기 쉽게 만든다고 한 그의 지적을 통해 학문 목적 쓰기 수업에서는 ‘잘 가르치는 것’ 이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관심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을 수 있다.¹⁶⁾

(2) 글쓰기의 모든 단계에 관여함으로써 개별 학습자의 능력 및 상황을 파악하고 과정 중심의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교수자가 과정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학습자의 글쓰기 단계 및 상황, 그리고 학습자의 능력을 명확히 파악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자연스럽게 학습자로 하여금 쓰기에서의 정직성을 준수하도록 한다. 또한 최종

16) 실제로 학술적 보고서 쓰기는 ‘주제 선정, 자료 검색 및 검토, 목차 구성, 개요 작성, 초고 작성, 수정고 작성, 참고문헌 목록 작성, 보고서 체제로 편집’ 등의 복잡한 과정들을 순환적으로 거쳐야 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작성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다 보니 모든 단계를 일일이 교수자가 관리하고 지켜볼 수 없으며 실질적인 쓰기 자체는 교실에서 이루어지기보다 학습자 자신에게 맡겨지는 일이 많다. 그러나 교수자가 과제에 대한 공지를 하고 나서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기까지 얼마나 자주, 그리고 성의 있는 코멘트를 하느냐에 따라 학습자의 글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또 이에 학습자는 동기 부여를 받게 되고 더 나은 글을 위해 반복적으로 자신의 글을 읽게 되는 것이다.

결과물만이 아닌 글쓰기의 모든 단계가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도 학습자로 하여금 쓰기에서의 정직성을 준수하게 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가령, 학술적 보고서의 주제 선정으로부터 최종 제출까지 학습자에게 일정한 기간이 주어지고 교수자는 매주 학습자의 글쓰기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고 어떤 부분을 고민하고 어려워하는지 대화를 나눈다. 학습자마다 쓰기 진행 상황은 여러 변인으로 인해 동일하지 않지만 교수자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꼼꼼하게 기록해 둬으로써 개별 학습자의 능력 및 상황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해당 학습자에게 필요한 도움을 줄 수도 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모든 단계들은 투명하게, 또 과정 중심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쓰기에서의 정직성 실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이다.

다음은 한 중국인 유학생과의 상호작용 사례 가운데 그 일부분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옮긴 것이다.¹⁷⁾

<표 1> 학술적 보고서 쓰기 단계에서 교수자·학습자간 상호작용 사례

차수	단계	교수자 메모
1차	주제 탐색 및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의 필요성, 연구 목적, 연구 방법 등을 간략하게 써 오게 하여 그것에 대한 학습자의 생각을 들어보고 학술적 보고서로서 진행 가능성과 적절성 여부를 함께 이야기함. - ‘외국인 유학생의 어려움’이라는 넓은 화제를 선정해 왔음 ↳ 범위를 좁혀 좀 더 구체화할 것을 요구하였음. 외국인 유학생의 어려움 가운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인냐는 질문에 자신이 속한 공대의 경우 대부분의 강의가 영어로 진행되는데 중국인 유학생은 강의 내용을

17) 2011년도 1학기 외국인 유학생 대상의 글쓰기 수강생 가운데 한 명의 사례이며 학술적 보고서는 약 5주 정도의 기간에 걸쳐 완성하도록 하였다. 면담은 의무가 아니라 학습자 자신의 속도에 맞게 자발적으로 할 수 있으나 주제 선정 및 목차 구성, 초고 작성에 대해서는 반드시 교수자와 1회 이상의 대화를 나누도록 공지하였다. 아울러 최종 보고서 제출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교수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을 경우 평가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 주었다.

		<p>잘 알아듣지 못하여 수업 내용을 따라가기 어렵다고 함. ‘중국인 유학생의 영어 강의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를 살펴봄으로써 문제의 심각성을 조사해 보는 것으로 화제를 좁힐 수 있음.</p>
2차	목차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자가 구상해 온 목차 및 논점의 방향을 함께 살펴봄. - 영어 강의에 대한 제도 수정 쪽으로 결론을 구상하고 있었음. <p>→ 학습자 스스로 제도를 수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그것보다는 현재 중국인 유학생으로서 영어 강의 수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고 어떤 방법으로 이를 극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볼 것을 제안함. (가령, 입학 전 영어 학습의 중요성, 수강 신청 시 영어 강의 여부 참고, 중국인과 차별된 한국인의 영어 발음에 익숙해지기 등)</p>
3차	참고 자료 검색 및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고 자료를 어떻게 검색해야 하는지 어떤 키워드로 접근해야 하는지 막막해함. <p>→ 중국인 학습자와 관련 있는 것이 아니더라도 현재 국내 대학의 영어 강의 현황에 대해 먼저 개괄적으로 알아볼 것을 조언하였음. 또 직접적으로 연관된 소논문이 눈에 띄지 않으면 신문 기사 등을 참고해도 좋다고 알려 줌. 중국인 유학생의 인식에 대해서는 설문이나 인터뷰 방법이 적절하겠으나 연구의 범위 및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그 대상을 자신의 소속 학교 재학생으로 좁힐 것을 권하였음.</p>
4차	초고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고 작성 중임. - 학습자 스스로 자신의 보고서가 어떤 의의를 갖는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음. <p>→ 설문 내용과 결과 제시 부분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하기 때문임을 지적함. 설문 조사를 통해 자신이 궁금한 내용을 알아보았지만 그것이 보고서에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는지, 꼭 필요한 설문 문항이었는지에 대해 신중한 고려가 부족했음.</p>
5차	ppt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제기는 잘 되었으나 전체 연구에서 도출한 결과가 무엇인지, 연구의 의의가 무엇인지 명확히 전달되지 않았음. <p>→ 연구의 목적과 결과가 호응되고 있는지 검토하고 연구를 통해 알게 된 결과를 한 마디로 말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볼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종 보고서 제출 <p>* 제출 전까지 1~2번의 수정 기회를 갖도록 함.</p>

<표 1>처럼 각 단계가 순조롭게 진행된 학습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학습자는 주제 선정을 어려워하여 2번~3번 변경하기도 하고 어떤 학습자는 자료를 어디서 어떻게 얼마나 찾아야 할지 막막해하기도 하며, 또 다른 학습자는 목차 구성 단계에서 막혀 진행이 더디기도 하다. 그렇지만 교수자와의 충분한 대화 기회를 가짐으로써 최대한 학습자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그들의 역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하면서 방향을 구체화해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표 1>은 교육적 활용도가 높다.

대부분의 학습자가 교수자와의 상호작용에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임하는 반면 일부 학습자는 다른 과목 과제와 겹쳤다는 이유로, 혹은 자료들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는 핑계로 단 한 번도 상호작용에 임하지 않는 일도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학습자가 기한에 맞추어 단기간에 완성한 최종보고서를 제출했을 때 교수자는 얼마나 그 결과에 대해 신뢰하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려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조제희(2009:16)에 따르면 학습자들이 얼마나 정직하게 글을 쓰는지를 판별하기 위하여 교수자는 학생들 개개인의 글쓰기 실력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¹⁸⁾ 단순히 과제를 부여한 뒤 최종 원고만 제출받는 교수법(product-oriented pedagogy)에서는 표절을 범하더라도, 혹은 심증이 가더라도 이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표 1>의 사례는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고 본다.

이와 같이 학술적 보고서 쓰기에 있어서도 단계별 상호작용은 교수자로 하여금 학습자의 역량과 진행 상황을 파악할 수 있게 하므로, 이는 곧 쓰기에서의 정직성 실천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매우 중요하다. 또한 학습자에게는 학술적 글쓰기의 모든 단계 하나하나, 교수자와의 성실한 상

18) 조제희(2009)에서는 학기 초에 학습자들이 교실에서 쓴 글, 즉 학습자의 실력이 그대로 나타나 있는 글(diagnostic writing)과 표절이 의심되는, 숙제로 내 준 글(assigned essay)을 대조해 봄으로써 그들의 실력을 파악할 수 있다고 하였다.

호작용 등이 성적에 반영됨을 숙지하도록 한다. 그리고 교수자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의 전 과정을 관찰하고 기록하면서 근거 자료를 남겨야 한다. <표 1>처럼 개별 학습자에 대한 내용을 별도로 기록하는 것도 유용하지만 <표 2>와 같이 전체 학습자의 진행 상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효율적인 방법임을 제안하고자 한다.

<표 2> 학술적 보고서 쓰기 진행 상황 점검표 및 작성 사례

이름	주제 선정	참고 자료 목록 선정 및 검토	목차 및 개요 구상	초고 작성	ppt 발표	1차 수정	~차 수정	최종고 제출
가	√	√						
나	√	√	√					
다	5/12	5/19	5/24	6/2	6/7			

단순히 진행 여부를 표시(√)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학습자 ‘다’의 사례처럼 각 단계를 수행한 날짜를 기록해 둔다면 단기간에 갑작스런 결과물이 나오는 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¹⁹⁾ 뿐만 아니라 <표 2>는 단기간에 완성된, 과정이 불투명한 최종 결과물에 대하여 왜 그것이 신뢰할 수 없는 글쓰기인지를 학습자에게 납득시킬 수 있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이처럼 학술적 보고서 쓰기에 있어서 모든 학습자에 대한 교수자의 체계적인 관리는 공정한 글쓰기 최종 평가를 위한 근간이 되며, 이 모든 것은 최종 보고서 제출 전까지 활발한 상호작용²⁰⁾이 이루어질 때 가능함

19) <표 2>는 교수자뿐만 아니라 학습자 스스로가 자신의 진행 상황을 메모해 두는 것으로 활용 가치가 높다. 상호작용을 할 때마다 교수자와 학습자가 각자의 표에 기록을 해 두는 습관을 갖는다면 이것 자체가 쓰기 과정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정직한 글쓰기 준수를 가능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20) 참고로, 이 글에서 의미하는 상호작용은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포함된다. 온라인 강의실의 게시판, 댓글, 개인 쪽지글, 이메일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을 명심해야 한다.

4. 맺음말

지금까지 이 글에서는 학문 목적 한국어 쓰기에서 ‘정직성’의 가치, 즉 성실하고 정직한 글쓰기의 중요성을 밝히고 앞선 연구의 이론과 실제 교육 현장의 사례를 토대로 실천적인 쓰기 교수 원리를 모색해 보았다.

‘쓰기에서의 정직성’은 ‘좋은 글’이 되기 위한 필수적인 요인으로서, 이것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학습자의 학문 목적 쓰기 능력의 신장도 결코 기대할 수 없다. 그렇지만 외국인 유학생이 정직한 글쓰기를 준수하지 않는다고 해서 모든 것을 학습자의 도덕성의 문제로만 간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교수자는 효율적인 교수 원리를 모색하고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것이 본고의 주된 논점이었다. 특히 쓰기에서의 정직성 문제가 아직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지 않은 학문 목적 한국어 교육의 현실을 감안할 때, 교수자의 역할과 영향은 더욱 절대적일 수밖에 없다.

본고에서 밝힌 교수 원리의 첫 번째는 쓰기에서의 정직성 준수를 위한 내용과 방법 등이 글쓰기 교육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 두 번째로는 지나친 방임이나 규제가 아닌 적절한 수준의 교수자의 관심과 배려가 전제되어야 하고, 일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된 규정 적용 등 교수자의 인식과 태도 하나하나가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끝으로 최종 보고서 제출 전까지 교사와 학습자가 지속적이고 활발한 상호작용을 통해 개별 학습자마다의 진행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곧 성실하고 정직한 글쓰기 준수를 가능하게 하는 지름길임을 강조하였다.

다만 본고에서 제안한 정직한 글쓰기를 위한 교수 원리들을 그 일부에 지나지 않은 것이므로 이를 근간으로 향후 다양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세밀한 교수 원리들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교수 계획 및 방법의 연구도 자연스럽게 가능해질 것이다. 본고를 통해 학문 목적 한국어 쓰기 교육에 있어서 ‘정직성’의 문제는 결코 가볍게 지나칠 수 없으며, 반드시 교육적 관점에서 해석되고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이 부각되었기를 기대한다.

<참고 문헌>

- 김성수(2008). 미국 대학의 ‘학문적 정직성’ 정책에 대한 연구-대학 글쓰기에서 ‘표절’ 문제를 중심으로-, <작문연구> 제6권, 한국작문학회. 193쪽~226쪽.
- 김성숙(2011). 학문 목적 기초 한국어 쓰기 능력 평가 척도 개발과 타당성 검증, 연세대 박사학위 논문.
- 김유미·강현화(2008). 학문 목적 학습자를 위한 학술 전문 어휘 선정 연구-한국어, 문학, 경영학, 컴퓨터공학 전공을 대상으로-, <한국어교육> 제19권 3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쪽~14쪽.
- 김정숙(2000). 학문적 목적의 한국어 교육과정 설계를 위한 기초 연구-학부 유학생을 위한 교양 과목 개설 요구 조사, 한국어교육 제11권2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쪽~19쪽.
- 김지혜(2009). ‘바꿔 쓰기(Paraphrase)’를 통한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의 쓰기 능력 향상 방안 연구, 경희대 석사학위 논문.
- 박석준(2008). 국내 대학의 학문 목적 한국어 교육 현황 분석, <한국어교육> 제10권1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쪽~32쪽.
- 이윤진(2011).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윤리적 글쓰기 교육의 방향, 이중언어학 제45호, 이중언어학회. 167쪽~188쪽.
- 이인영(2011). 외국인 대학생의 학술적 글쓰기에 나타난 오류 양상 연구, 현대문학의 연구 44, 493쪽~526쪽.
- 이인재(2008). 대학에서의 글쓰기 윤리교육, 작문연구 제6권, 작문학회. 129쪽~159쪽.
- 이재승(2010). 글쓰기 윤리 교육의 내용 체계화 방안, 한국초등교육 제20권 2호, 서울교대 초등교육연구소. 25쪽~45쪽.
- 이정희 외(2007). 유학생을 위한 한국어 글쓰기의 실제, 하우.
- 이혜영(2001).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한국어 교육, <이중언어학> 제18권1호, 이중언어학회. 279쪽~301쪽.
- 이혜영(2004). 학문 목적 한국어 교육과정 설계 연구, <한국어 교육> 제15권1

- 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37쪽~164쪽.
- 장은경(2009). 한국어 학문 목적 쓰기 교육 방안 연구-참고 텍스트의 내용 통합과 재구성을 중심으로-, 고려대 석사학위 논문.
- 정병기(2008). 대학생 글쓰기의 부정행위와 윤리 교육 방안, 사고와표현 제1권1호, 한국사고와표현학회. 267쪽~294쪽.
- 정희모 외(2008). 대학 글쓰기, 삼인.
- 조제희(2009). 글쓰기 부정행위에 관한 처벌 규정과 사례, 사고와표현 제2권 2호, 한국사고와표현학회. 7쪽~39쪽.
- 최선경(2009). 대학생 글쓰기에 나타난 오류 분석-인용방식의 오류를 중심으로, 새국어교육 제81호, 299~324쪽.
- 최은규(2009). 국내 학문 목적 한국어 교육의 현황과 과제, <국어어문> 제141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333쪽~358쪽.
- 최정순(2006). 학문 목적 한국어 교육의 교육과정과 평가, <이중언어학> 제31호, 이중언어학회. 277~313쪽.
- 최은지(2009). 사회적 구성주의에 기반한 학문 목적 한국어 작문 교육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 논문.
- 한송화(2010). 학문목적 한국어 교육과정 설계의 실제-대학 입학 전 한국어 교육 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어 교육> 제21권 1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25쪽~248쪽.
- 황성근(2008). 대학생의 글쓰기윤리와 표절 문제, 사고와표현 제1권1호, 한국사고와표현학회. 231쪽~265쪽.
- 허용(2007).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인문한국어, 다락원.
- Dey, S. K. and M. Abdus Sobhan(2006). *Impact of unethical practices of plagiarism on learning, teaching and research in higher education : Some combating strategies*, Sydney, NSW.
- Howard, R. M.(2002). Don't police plagiarism: just teach!, *Education Digest*, 67(5), 46-50.
- John Walker(2010). Measuring plagiarism: researching what students do, not what they say they do, *Studies in Higher Education*, Feb2010, Vol. 35 Issue 1, 41-59.
- Pecorari, D.(2003). Good and original: Plagiarism and patchwriting in academic second-language writing, *Journal of Second Language Writing*12, 317-345.
- Stephen Bailey(2003/2011), *Academic Writing, A Handbook for International Students*, Routledge.

이윤진(Yunjin Lee)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120-749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

전화번호: 02-2123-3908

전자우편: smile-yunjin@hanmail.net

투고일자: 2011. 12. 20

심사(수정)일자: 2012. 2. 20

게재결정: 2012. 2. 21